



# 자연적 자본론

『비어있는 세계의 경제학으로부터 포화된 세계의 경제학으로』 허만 데일리,  
출판: Economically Viable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World Bank, 1991  
Edited by R.Goodland, H.Daly, S. El Serafy and R. Costanza

## 허명구

전(前)『사람과 일터』 주간

**경**제는 성장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거리에는 차들이 넘치고, 매장에는 화려한 상품들이 그득하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천달러 밖에 안되던 시대보다 삶의 질이 10배로 높아졌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왜일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항상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하기 때문인가. 그러나 단지 주관적인 욕심 때문에 역시 주관적인 행복감이 억제되는 것이 그 이유라면,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소득과 상품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우리는 객관적으로 더 잘 살게 되어 있었는가. 여기에도 역시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 시속 200킬로를 달릴 수 있는 승용차를 하나 장만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데에 출퇴근 시간이 짧아져 10년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더 생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10년 전 정도의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때는 필요없었던 자가용을 소유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천달라 시대보다 경제규모가 10배나 늘어난 지금 오히려 한참 일할 나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도대체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장에 뭔가 내

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는 그 중 한 사람인 허만 데일리의 견해를 소개해 본다. 그는 기존의 경제성장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과대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인 경제학이나 상식은 경제성장을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데일리도 그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데일리는 축적의 목표로서의 자본을 단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자나 서비스로만 본 데에

기존 경제성장 개념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무엇을 보지 않고 있다 는 것인가. 데일리는 그것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의 자본과 대비되는 '자연적 자본' (natural capital)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자연적 자본이란 물과 공기 등 바다 기타 등등 인간에게 효용을 주는 자연 그 자체이다. 그가 굳이 거기에 자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단지 인공의 물자나 서비스가 주는 효용만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효용도 경제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런 때만이 사람들이 착각의 시슬에서 풀려나 진정으로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데일리의 견해에 의하면, 경제성장의 양

적 지표가 행복이나 삶의 질의 주관적 객관적 성장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일차적 원인은 바로 그 지표가 자연적 자본을 빠뜨린 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1000의 가치를 갖는 인공적 자본이 축적되었다 해도 그것을 위해 1000

의 가치에 해당하는 자연적 자본이 망가렸다면, 실제의 성장은 없다. 만약 축적된 인공의 자본 1000 가운데 300이 자연적 자본의 훼손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이라면, 실제 성장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 700의 가치를 갖는 티브 이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

런데 그 과정에서 하천이 오염되어 식수의 질이 1000의 가치만큼 저하했다. 그래서 도저히 물을 그냥 먹을 수 없어 조금이라도 물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300에 해당하는 정수기를 제조했다. 이 경우 제조된 자본은 합계 1000(티브이 + 정수기)이지만, 그 중 300은 낭비이고, 상실된 가치는 1000이다. 그래서 성장은 마이너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학이나 경제 지표는 1000의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결국 경제는 '성장' 했지만 사람들은 조금도 더 행복해졌다고 느낄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제활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데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자본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싸운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연의 가치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일리의 눈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다.

데일리는 자연적 자본을 고려에 넣는 성장, 그것을 위한 경제학과 경제관념의 개편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과 그 경제는 단지 문제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이를 것이며, 그 사설이 가까이 도달했다고 경고한다. 그간 공짜 즉 자유재료 무한재로서 국민경제의 대차 대조표상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간주되어 왔던 자연적 자본은 이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제한요소(limiting factor)로 돌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한요소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살아서 횡단을 마치려면 물과 밥이 필요하다. 이 때 물을 세수하는데, 샤워하는데 다 써버리고는 물이 부족해졌다고 하여 물을 놔두고 대신 밥을 두배로 먹어 허기를 채웠다고 하자. 이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다. 밥을 두배로 먹으면 물이 더 타서 물을 더 찾게 된다. 결국 이 사람의 생존전략은 실패로 끝난다. 이것은 물과 밥이 상호 대체가능한 대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는 생존을 위해 함께 필요한,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필요 없고, 하나를 더 쓰면 다른 하나도 더 쓰게 되는 보완재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물과 밥, 각각을 생존의 제한요소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의 성장에서도 제한요소가 있다. 하나의 제한요소가 고갈되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소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경제시스템의 성장은 불가능해진다.

과거, 개발되지 않은 자원은 풍부하고 사람과 돈은 부족했던 시대에는 그러한 제한요소가 인공적 자본, 즉 돈이나 기계설비였다면, 이제 그것은 자연적 자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데일리의 주장이다. 말하자면 돈이나 배가 없어서 어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고기가 고갈되어 어업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도 인공적 자본의 가치붕괴를 자연시키려는 유혹 때문에 자연적 자본의 파괴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속에서 배를 폐기처분해야 할 위기에 몰린 업주가 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숙여만이 아니라 새끼 고기까지 모조리 잡아 씨를 말려버리려 들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데일리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연을 공짜로 널려 있는 자유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자본'으로서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학과 경제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데일리는 이것을 비아있는 세계의 경제학으로부터 포화된 세계의 경제학으로의 역사적 전환이라 부른다.

지금은 임투의 계절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인적 자본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싸우고 자본은 자본의 가치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연적 자본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으니 누가 그것의 가치를 지켜줄 것인가. 자연적 자본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